



역사와 전통, 현대와 변화가 조화를 이룬 안동교회

리더십 포커스(Leadership Focus)는 지금 이시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이며, 또 어떤 교회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리더십 포커스는 대담, 화보, 프로그램, 담임목사의 설교 총 4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보다 입체적으로 해당 교회를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 성장하는 교회의 사역들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11월호 리더십 포커스(Leadership Focus) 첫 번째 코너에서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현대와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안동교회의 김승학 목사를 만나 그의 목회 이야기와 안동교회 사역 전반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편집부>

최근 인문학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인문학에 관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인문학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까운 예로 퍼스널컴퓨터 시대를 열고 태블릿 PC를 유행시킨 스티브 잡스의 성공요인도 컴퓨터를 만드는 일에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한 것이다. 그는 제품을 디자인할 때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예술품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지혜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가 있다. 바로 안동교회다. 안동교회의 김승학 담임목사는 103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에 현대와 변화를 조화시켰다.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목회감각을 살려 안동교회를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교회로 변화시킨 것이다.

안동교회의 시작

안동교회는 자생적인 그리스도인이 모여 이루

어진 교회다. 안동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남에 따라 1908년 안동 선교부가 설치되어 쏘텔(Rev. C.C. Sawtell) 선교사가 주재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그가 1909년 8월 둘째 주일 처음으로 예배드린 날이 안동교회의 창립일이 되었다. 처음에는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2년이 지나 ‘ㄱ’자 모양의 11칸 짜리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1913년에는 현재의 위치로 옮겨 함석지붕의 300-400명 규모의 목조 2층 건물의 예배당으로 옮겼고, 1937년 석조 예배당을 지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김승학 목사는 이러한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안동교회에 2004년 9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안동교회는 리더십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김광현 상원로목사, 김기수 원로목사, 김승학 담임목사 3대가 서로 도와 한 교회를 섬긴, 우리나라 교회사에 아름다운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100년 이상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안동교회에 부임하여 어려움이 없었느냐의 질문에 김승학 목사는 이렇게 대답한다.

“어려운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이신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목회 초년병인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것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설교도, 사역도 잘한다고 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김광현 목사님이 37년 동안, 김기수 목사님은 24년을 안동교회를 섬기면서 오랜 교회의 역사와 전통 속에 너무 좋은 성도들의 토양이 이루어져서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역들 중 못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사회를 섬겨온 교회

안동교회는 지역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안동교회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사회를 섬겨왔다.

1911년에는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계명학원을 시작했다. 당시 소학교는 여성들에게 문턱이 높았는데, 사립학교인 계명학교를 시작하며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이 학교에서 배출한 여성지도자들이 안동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1921년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기독교 청년면려회 운동을 시작하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 주었다. 1924년에는 경안중학원을 개교했고, 1948년에는 안동에서 처음으로 안동 유치원을 열었다. 이 유치원

은 지금도 안동에 있는 유아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다. 6.25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8년부터는 교회에서 장학금을 모아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1965년에는 교인들이 돈을 모아 안동 중앙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총칼로부터 교회와 교장을 지키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1919년 안동의 만세운동 주역이 바로 안동교회다. 또 안동교회는 지금부터 이미 19년 전에 경로대학을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을 섬겼다. 요즘에는 2만 5천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는 유일한 하늘씨앗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만들어 지역을 섬기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 도배와 장판을 해주고, 독거노인들을 매년 한두 차례씩 초청해서 위로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앞으로는 작년에 만든 노인 종합복지센터를 통해 좀더 체계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섬길 계획이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장애우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위로의 시간도 갖고 있다. 새터민들에게는 적십자와 협력하여 가전제품 등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안수집사 가정과 연결시켜 돕고 있다. 또한 교회의 100주년 기념관에 3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을 꾸미고 지역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안동교회는 100여 년간 지역과 함께 해온 교회의 전통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전략적인 새신자 정착 시스템

김 목사는 유교의 고장 안동을 예수마을로 변화시키는 것을 꿈꾼다. 그래서 두드림 전도대를 만들었다. 전도를 하기 위해 두드림이라는 의미와 영어의 'Do Dream'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안동교회는 안동을 복음화, 성시화 하기 위해 올해 11월 '하늘기쁨 큰 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안동 시민 11만 3천명 중 4천명을 초청하는 것이 목표다. 김 목



**안동교회의 김승학 담임목사는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목회감각을 살려
안동교회를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교회로 변화시켰다.**



사는 안동교회가 이미 7천명을 초대할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현재 안동교회에서 매년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수는 160-170명이다. 부활주일, 성탄주일, 일년에 두 번 세례식을 갖는데 어떤 때는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높은 새가족 정착률의 배후에는 안동교회의 전략적인 새가족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안동교회는 새가족 훈련반을 새가족신입반, 새가족안내반, 새가족성장반, 새가족사역반의 4개 부문으로 나누었다. 새가족신입반에서는 새가족 교사들이 전화 연락을 하고 편지를 보내는 등 새가족을 돌보는 일반적인 사역을 하지만, 새가족안내반은 화요일 밤마다 1시간 반씩 9주를 모여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새가족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 훈련받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9주 훈련과정을 끝까지 마치는 사람은 교회에 확실하게 정착하고 곧바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9주의 새가족안내반을 마치게 되면 새가족성장반으로 올라가게 된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자꾸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관계성을 만들어간다. 김 목사는 이러한 새가족훈련이 안동교회가 꾸준히 성장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다음세대 사역

종교교육과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한 김 목사는 특히 다음세대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음세대 사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동교회에 부임하고 그는 다음



담임목사 김승학 목사
소속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회창립일 1909. 8. 8
교회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화성동 서동문로 127
교회전화 054) 858-2000
홈페이지 <http://www.adpc.or.kr>

세대사역을 위해 많이 고민했다고 한다. 20여 년 전 안동교회에서 전도사와 부목사 사역을 할 때만 해도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학생이 모인 숫자가 150-200명 정도는 되었고 중등부, 고등부도 각각 200명은 되었는데, 교회에 부임하고 보니 교회학교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이대로 가다간 교회학교가 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교회학교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역자와 함께 1년 동안 어떻게 새로운 프레임으로 교회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전통적인 교회학교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다. 교회학교

도 '다음세대 교회' 라고 명칭을 바꾸고 취학 전 아동들은 '새싹교회' 로, 초등부는 '꿈나무교회', 중·고등부는 '비전터교회', 청년들은 '하늘청년교회' 로 이름을 바꾸고 전임사역자를 세웠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계속해서 학생수가 감소가 되던 것이 2년이 지나면서 완만하지만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안동교회는 초등학생들을 통합반으로 운영하고, 60분 동안 예배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중·고등부도 통합해서 비전터교회를 만들어 전임사역자가 심방하고 집중하게 했다. 교회학교 프레임을 바꾸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바꾼 것이다.

올해부터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면서 다음세대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김 목사는 전통적인 한국 교회에서 시행하던 주일 오후 어린이 예배와, 수요일 오후 어린이 예배를 부활시켰다. 토요일에는 문화교실, 축구교실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어려웠지만 김 목사는 부모의 신앙교육을 강조하며 수요일 저녁 어린이예배에 부모가 함께 나올 것을 권면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수요일 어린이 저녁예배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통해 어린이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부모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모습의 교회학교로 변화되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김 목사는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을 계승하여 현대적으로 적용, 발전시키고 있다.

안동교회의 전통 중 하나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이다. 안동교회는 담임목회자들이 선교사로 헌신한 교회이다. 2대 담임목사인 이대영 목사는 교회를 1년 섬기고 총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로 가서 무려 30년 이상을 사역하였고, 4대 담임목사인 박상동 목사는 일본 오사카의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담임목회자들의 이러한 선교 열정을 본받아 안동교회의 장로들도 곳곳에서 전도하여 안동지역에 18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현재까지 안동교회는 20개 교회를 분립개척하였고 그 교회들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김 목사는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전 세계에 50가정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비전을 가지고 현재 7가정 1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안동교회는 구역에서 약정하고 모아진 선교비가 일년에 1억 5천만 원이나 된다. 또한 매 주일마다 모든 예배에서 파송 선교사의 이름과 기도제목 및 사역을 위해 전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또한 안동교회는 20여 년 전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천독 대행진을 진행할 정도로 말씀제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교회 역사 전시실에 보면 김광현 상원로목사의 사모님이 쓴 필사 성경이 전시되어 있는데,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4번씩 쓴 것이다. 사모님뿐 아니라 교인들도 손이 상하면서까지 필사를 했다고 한다. 김 목사는 이러한 말씀중심의 교회 전통을 현대에 적용하여 「생명의 삶」(두란노)을 통해 가정예배,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며 말씀묵상 훈련을 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고 있다. 김 목사의

설교도 이러한 말씀 묵상을 기초로 준비한다고 한다.

안동교회는 올해 6월 14일 100주년 기념 관 영곡아트홀에서 기독교 인물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안동지역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발자취를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동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시작한 일이다.

김 목사는 작은 일부터 현재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들이 자산이 되어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고 믿는다. 100여 년 동안 안동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욱 안동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김승학 목사와 안동교회는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동교회가 지역과 한국 교회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한다. ☞

김승학 목사

한양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컬럼비아 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클레몬트 신학대학원 졸업
 경안노회 유지재단 이사장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교무처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회진단 목회진단 위원회 위원
 목사장로신문사 발행이사 및 논설위원
 안동교회 담임목사



1

1. **교회본당** 1937년 4월 준공 후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선배들의 헌신과 열정, 안동지역의 복음화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곳이다.
2. **1938년 교회준공예배**
3. **사랑의 쌀 나누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누기는 지난 2009년에 교회 100주년을 맞이하여 1,004가정에 사랑의 쌀을 지역의 독거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눔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4.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위로하며 합동결혼식 등을 통해 이들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 **교회전경**
6. **3.1절 만세운동거리행진** 1919년 안동지역에서 일어난 3.1절 만세운동을 주도해온(본교회 교인 9명 복역) 안동교회는 매년 독립운동기념관 주관으로 진행되는 3.1만세운동거리행진을 이끄는 등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7. **노인종합복지센터** 2011년 개관한 안동노인종합복지센터는 지난 19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3



4



5



6



7



1



2



3

1. **열방의빛선교대회** 2009년 100주년 기념으로 처음 시작한 선교대회는 2년마다 열리며 교파를 초월하여 안동 및 경북북부지역에 선교의 비전을 심는 장이 되고 있다.
2. **중국어 예비부 문화체험 및 연합예배** 2007년 처음으로 시작한 중국어예배는 안동지역에 유학 온 중국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진행하며 상담과 여러 행사를 통해 이들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3. **안동유치원** 1948년 3월 안동 최초로 설립된 이후 지역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유치원으로 2012년 현재 총 5개 학급에 130여 명의 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
4. **하늘씨앗어린이도서관** 경북북부지역 유일한 사립어린이 도서관으로 2만 5천여 권의 어린이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4



5



6

5. **부활절거리행진 및 계란나눔** 매년 부활절마다 전교인이 부활절 축하 거리행진을 하면서 부활의 의미와 기쁨을 전하며 나눈다.

6. **백주년기념관 영곡아트홀** 기독교 인물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영곡아트홀은 8대 담임목사인故 김기수 목사의 호인 "영곡"을 딴 이름으로 각종 콘서트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7. **100주년기념관** 2009년 8월 완공된 100주년 기념관내에 있는 로비에서 소그룹 박람회를 하고 있는 모습.

8. **꿈나무교회** 꿈나무교회(초등학생) 여름성경학교 모습. 안동교회는 다음세대교회의 틀을 완전히 개혁하여 새싹교회(유아·유치부), 비전교회(중·고등부) 그리고 하늘정년교회(정년부)의 전용예배실을 가지고 예배와 함께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

9. **역사전시실** 2011년 개관. 안동교회 역사뿐 아니라 안동지역 100년의 선교역사를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공간이기도 하다.



7



8



9

새로운 새가족 양육 패러다임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

새가족 프로그램을 시작한 동기

안동교회라는 브랜드의 영향력은 안동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위력을 발휘한다. 지난 103년 동안 안동의 대표적인 교회라는 이미지로 지역사회에 축적된 ‘안동교회 브랜드’는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타 지역에서 안동으로 이사한 사람들은 미리 접한 안동교회에 대한 소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 등록한다. 이렇게 등록하는 새가족의 수는 연 평균 200여 명이나 된다. 그렇다고 안동교회가 전도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안동교회의 ‘두드림 전도대’는 거의 날마다 거리나 대학교 캠퍼스를 누빈다. 이들의 전도사역은 안동 땅에 영적으로 풍요로운 토양과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안동교회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하늘기쁨 큰 잔치’라는 총전도주일을 지킨다. 안동교회는 여덟 분이 첫 예배를 드린 후 103년 동안 안동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룩한 사역에 한 순간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전도만이 능사는 아니다. 스스로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이나 혹은 전도를 통해 교회에 들어온 새가족을 얼마

나 정착시키느냐가 교회성장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안동교회는 일찍부터 새가족 양육과 돌봄에 관심을 갖고 애써왔다. 거의 20년 전인 1994년부터 새가족부와 담당 교역자가 있었을 정도다. 그 만큼 새가족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새가족 돌봄과 양육의 기본적인 패턴은 변하지 않고, 약간의 수정과 보완만이 있었다. 새가족이 등록하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담당 교역자와 새가족부 교사들이 심방했다. 새가족 훈련은 새가족의 편의를 위해 보통 주일에 행해졌다. 매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 약 40여 분 동안 진행되는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새가족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3-4차례에 걸친 훈련에 참여하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충분한 훈련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또한 기존 성도들이나 새가족들이 서로 사귀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교육도, 관계를 맺는 것도 힘들어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새가

족 정착비용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따라서 새가족 훈련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의 도입

등록하는 모든 새가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헌신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한 그것은 많은 경우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새가족 정착에는 현재의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안동교회의 지역적 한계는 갑작스러운 부흥보다 점진적인 부흥을 위한 전략의 도입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안동교회는 새가족의 정착을 높일 뿐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역에 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새가족 양육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9주 동안 계속되는 '새가족안내반'의 운영이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새가족들이 교회에서 준비한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모든 새가족을 동일한 방법으로 돌보고 훈련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안동교회는 새가족 안내반을 이수할 수 있는 새가족과 그렇지 못한 새가족을 분리해 돌봄과 양육을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투입할 수 있는 인적·물적·환경적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을 모두 등록시킨다. 어렵게 교회에 첫발을 디딘 사람을 등록시키지 않는 것도 실례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등록은 받지만 2종류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새가족들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동일한 돌봄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새가족 형편에 따른 맞춤형

훈련과 돌봄을 위해 안동교회가 새가족을 정착시키고 양육하는 4가지 틀(Frame)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

1. 새가족안내반

(1) 사역 내용

새가족안내반은 일반적으로 화요일 밤(오후 7시 시작)과 목요일 오전반(10시 시작)으로 나누어 평균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개설된다. 9주 동안 계속되는 새가족안내반은 매 기수마다 평균 15-20명이 수료한다. 하지만 총전도주일이 끝난 후에는 등록된 새가족을 위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오전 2개 반, 오후 3개 반을 운영할 때도 있다. 새가족부에는 새가족안내반을 위해 헌신하는 잘 훈련된 교사들이 있는데, 보통 8명이 한조를 이루어 9주 동안 새가족들을 섬긴다. 한 조를 구성하고 있는 8명의 봉사자는 교사 4명과 주방 봉사자 및 동행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4명으로 구성된다. 총전도주일을 마친 후에는 비상으로 준비된 새가족안내반 교사들이 투입된다. 새가족부는 새가족안내과정을 위해 봉사할 A, B, C 3개의 교사조(한 개조는 8명의 교사로 구성된다)가 있으며, 이들이 로테이션으로 안내반을 위해 헌신한다.

가령 A조가 9주 동안의 안내반을 운영할 동안 훈련기간이 마치기 약 한 달 전부터 B조는 다음 안내반을 준비한다. 이 때 B조는 새로운 안내반에 참여할 대상자에 연락을 취하고 명단을 확보한다. 보통 안내반이 시작되기 전에 사랑나눔편지를 2회 발송하고, 안내반이 시작된 후에는 8회를 발송하여 총 10회의 우편발송이 이루어진다. 새가족안내

반에 참여하고 있는 새가족들에게 교사가 매주 새로운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편지는 지난 주 함께한 시간이 뜻 깊은 시간이었음을 밝힌다. 또한 지난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다가올 모임에서 나눌 내용을 포함한다. 무엇보다 편지에는 교사들이 새가족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밝힌다. 보통 주초에 발송하여 주중에 새가족안내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중에 받아보아 다음 만남을 잊지 않도록 한다.

(2) 교사의 역할

사실 주일이 아닌 평일 밤에 9차례 훈련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 한 번 모임에 80-90분 정도 소요되는데, 처음 두 번의 모임에서는 담임목사가 안동교회 소개와 사명선언서 및 목회방침을 설명하고, 세 번째 시간은 새가족 담당교역자가 예배 순서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며, 네 번째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은 안내반 교사들의 지도아래 4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이미 배부된 교재로 기독교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서로 나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시간은 식탁교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한다. 특히 매 모임마다 주방에서는 훈련받고 있는 새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 이 때 준비하는 음식은 저녁 식사로도 충분할 정도로 풍성하다. 또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새가족들을 위해 영아실이나 유아실에서 자녀들을 돌보아줌으로써 자녀들이 어리다 하더라도 안내반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교사는 평소 새가족의 출석과 영적인 상

태를 체크한다. 잘 훈련된 교사는 전화로 연락하고, 편지를 보내거나 새가족의 영혼을 돌보는 일과 함께 9주 동안의 안내과정에서 4개로 나누어진 소그룹의 리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안내반 모임을 마친 후 교사들은 새가족을 집까지 교회 차량이나 자신의 승용차로 운행해준다. 9주 동안의 새가족안내반 과정이 끝나면 주일 오전 2부 혹은 3부 예배 때 수료식을 통해 온 성도들에게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훈련기간을 통과했음을 알린다. 이때 수료자 전원에게 신앙서적과 수료한 새가족 및 수고한 교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틀에 넣어 전달한다. 9주 기간은 교육 뿐 아니라 서로가 관계를 맺는 기회이기도 하다. 수료식을 마친 새가족은 곧바로 구역으로 편성되지 않고 새가족안내반에서 9주 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은 교사들이 새가족의 영적 상태에 따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돌보다가 구역으로 보냄으로써 그들의 소임을 완수한다.

〈안동교회 새가족 양육 시스템〉



(3) 새가족안내반 교과과정(curriculum)

9주 동안 계속되는 새가족안내반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차수	교육담당	교육내용	비고
1주	담임목사	안동교회소개	동영상
2주		사명선언과 목회방침	교재
3주	담당교역자	예배의 순서와 의미	동영상
4주		만남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주		성경 - 말씀의 내용과 의미	
6주	새가족 교사	기도 - 기도의 의미와 방법	교재
7주		찬송 - 찬송의 의미와 내용	
8주		말씀묵상 - 말씀 묵상하는 방법	
9주	다함께	교제 - 식사를 통한 교제	식사

2. 새가족신입반

모든 새가족의 영혼은 소중하다. 9주 동안 평일에 계속되는 새가족안내반을 이수할 수 없는 새가족을 위한 돌봄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평일에 교회에 나와 새가족안내반에서 훈련받을 수 없는 새가족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훈련과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다. 안동교회는 이들을 위한 사역을 '새가족신입반'으로 명명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새가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사들을 훈련시켜 돌보고 있다. 새가족신입반 교사들은 새가족안내반과 중첩되지 않는다. 별도의 조직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사역 내용은 새가족안내반과 다르다. 새가족안내반을 이수할 수 없는 새가족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새가족신입반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편지를 발송한다. 특히 새가족에게 발송되는 첫 편지는 안내반을 이수하지 못하는 새

가족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등록한 주일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에 보낸다. 이어 그 주 수요일에는 문자담당자가 등록한 새가족에게 환영문자를 보낸다. 또한 새가족신입반 교사 중에서 등록한 새가족을 돌볼 담당자를 1주일 이내에 결정한다. 교사들은 프린트된 편지를 주 1회, 총 5주 계속해서 발송한다. 또 전화하고 심방하며 주일에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며 한 주일의 삶을 체크한다. 이 기간은 보통 4-6개월간 계속된다. 교사들은 새가족안내반 교육을 권면하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 새가족안내반에 참여하지 않은 새가족들도 보통 4개월 후에는 구역으로 옮겨가 구역리더들이 돌보도록 한다.

3. 새가족성장반

(1) 새가족성장반 교과과정(curriculum)

새가족성장반 교재는 「성화의 삶」(임형천 저, 두란노)을 사용한다. 교재는 삶에

적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계속되는 유희와 승리의 방법, 기도의 능력과 훈련, 계속 보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의 전도, 훈련의 결과로서의 섬김과 봉사, 아름다운 가정을 새로운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탁교제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한다. 아래는 새가족성장반 교재 내용이다.

(2) 사역 내용

새가족안내반을 수료한 새가족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9주 과정의 새가족성장반을 두고 있다. 새가족성장반은 새가족 담당교역자가 맡는다. 보통 한 기수에 참여하는 수는 10명 내외이다. 성장반의 교과과정은 안내반에서 훈련받을 내용을 심화시키는 과정이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질의와 응답, 삶의 적용을 간증하고 나눔을 통해 서로가 성숙해짐을 목표로 한다. 안내반의

교과과정과 비슷하지만 내용은 보다 깊은 내용을 다룬다. 새가족성장반에서 매 주마다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시간에는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10-20항의 질문에 답한 후 발표하고 칭찬과 격려의 글을 남긴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변화를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남편과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발표한 후 우편으로 발송한다. 기도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최근 자신에게 감동을 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가를 발표하고, 서로 함께 읽고 찬송한다. 성경읽기표를 나눠주고 매일 한 장씩 읽도록 권면한다. 또한 타임캡슐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해 적당한 시간에 읽어볼 수 있게 한다. 마지막 시간은 각각 서로 다른 음식을 준비해 식탁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4. 새가족사역반

새가족사역반은 안내반, 신입반, 성장반을 이수한 새가족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

〈새가족성장반 교재내용〉

차수	교육담당	차수	차수
1주	담당교역자	두 주인 사이에서	교재
2주	담당교역자	유희를 이기는 삶	교재
3주	담당교역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	교재
4주	담당교역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교재
5주	담당교역자	한 지체로서의 교제	교재
6주	담당교역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교재
7주	담당교역자	섬김이 있는 생활	교재
8주	담당교역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가정	교재
9주	다함께	교제-식사를 통한 교제	식사

역의 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새가족사역반은 특별한 교과과정을 갖고 있지 않다. 사역반은 새가족들이 적절한 곳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부서이다. 새가족사역반은 새가족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훈련과 봉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역반 교사들은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는 새가족들을 교역자에게 추천하고 몇 가지 검증을 거쳐 사역의 장으로 보낸다.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주 동안의 안내반을 거치면서 이들을 돌본 교사들은 새가족들의 달란트와 경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이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관과 부서로 적절히 배치한다. 비록 안내반을 이수하지 않았지만 신입반을 통해 수개월 동안 관계를 맺은 결과 알게 된 새가족의 봉사경험, 특징, 달란트 등을 고려해 사역의 장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실제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성장반의 경우도 동일하다.

안동교회 새가족 양육 시스템 실시 결과

많은 목회자는 부흥을 꿈꾼다. 그러나 교회 성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도시나 신도시와는 다르게 오래된 중소도시에 위치한 교회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중소도시는 인구, 정서 등 여러 면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중소도시, 신도시, 대도시 등 어느 곳에서 갑작스럽게 부흥했다는 소식은 점점 듣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흔히 목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

거리 경주라고 말한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도 없다. 목회를 마라톤으로 생각한다면 조금해 할 이유가 없다. 이사, 낙심, 죽음 등 자연감소를 제외하고 매년 몇십 명씩 교회에 정착시키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다. 가령 자연감소를 제외하고 20명씩 새로 정착된다면 10년 후에는 무려 200명의 새로운 출석교인이 증가된 것이다. 사실 대도시나 신도시에서, 특히 인구 변동이 거의 없는 중소도시에서 출석성도 기준으로 매년 수십 명 씩이라도 성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안동교회는 새가족안내반을 통해 출석률이 60%에 가깝고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알곡성도를 매년 130명에서 150명 정도 수확한다. 또한 출석률은 안내반 수료자보다 떨어지지만 주일예배에 출석 가능한 100여명 정도의 새가족들 신입반을 통해서 매년 얻을 수 있다.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일예배에 출석 가능한 새가족을 매년 200여명 이상 매년 새롭게 수혈할 수 있다. 안동교회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9년 동안 점진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9년 동안 장년 출석성도의 수가 매년 100여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0년 성탄절 세례식에서는 무려 100명이 넘는 새가족이 세례와 입교를 받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다.

개교회 적용시 유의할 점

9년 전 안동교회에서 자체 개발하여 도입한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은 헌신된 교사들이 없었다면 열매를 맺기 어려웠을 것이다. 처



음에는 13주 동안 매주 화요일 밤에 모여 새가족들을 양육하였다. 몇 번의 수정을 통해 지금은 훈련기간을 9주로 확정하였다. 특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새가족 교사들의 수고를 잊을 수 없다. 새가족안내반 모임이 있는 날이면 담당 교사들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해 교회 정문에서 기다리는 모습은 새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다. 모임의 회수가 지나가면서 안내반에 참석하는 새가족들은 교사들의 헌신 때문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씩 갖는 새가족 환영의 시간에는 교사의 사랑과 눈물겨운 헌신에 감사하는 새가족의 간증이 빠지지 않는다.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의 성패는 헌신된 교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할 교사훈련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새가족안내반을 조금 늦게 시작할지라도 교사훈련과 안내반 운영을 위한 예행연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주일이 아닌 평일에 새가족안내반을 시행해야 한다. 느슨하게 훈련받은 사람보다는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견고하게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처음부터 강력한 훈련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야 한다. 반대와 염려가 있더라도 신입반 훈련기간을 줄이지 말고 교사들의 헌신 속에 9주의 교과과정을 뚝심있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협력할 때 점진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㉞

기억에 남는 교회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음식점은 모름지기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 되는 집은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난 음식점들은 참 신기하게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좋은 소문이 난 교회들은 부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좋은 소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많이 퍼져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 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좋은 소문이 퍼져 한국에서 모든 면에서 으뜸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이러한 바람은 모든 성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한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고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교회였습니다. 잊을 수 없고, 늘 마음과 머릿속

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교회를 섬기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바울에게 좋은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찌 사도 바울이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를 향해 쓴 첫 번째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2차 전도여행 기간 중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었지만 여의치가 않아 대신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의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들은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살전 1:3).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교회를 잊을 수 없었을까요?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믿음의 역사

우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에서 펼쳐진 믿음의 역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믿음의 사건들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기억에 남는 교회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문 3절에 기록된 ‘믿음의 역사’를 영어성경 KJV과 NASB에서는 ‘work of fait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

는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외적으로 나타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악물과 갱 폭력으로 유명했던 한 나이트클럽이 교회로 변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시도를 감행한 교회는 미국의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한 ‘마스 힐 교회’입니다. 2008년 시애틀에는 참혹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스 힐 교회는 총기사건이 발생한 후 395만 달러에 나이트클럽을 구입해 37만 달러를 들여 예배당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 일을 기획한 탐 게이더스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이번 시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3월 16일 리모델링한 모습으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완전히 바뀐 ‘마스 힐 교회’에 지역주민이 400여 명이나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댄서 룬은 옷장으로 바뀌고, 콘돔을 나눠 주던 장소는 마름모꼴 무늬의 다용도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교회 근처의 카페 매니저는 “교회가 생겨서 매우 기쁘다”며 “이곳이 예전에 경찰들이 싸움하는 장소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



“계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막 9:23)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지식, 경험, 지혜, 인간관계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 55:8-9)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

한 믿음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가 모두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 사랑의 수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늘 기억에 남는다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은 병자들과 굶주린 자를 도왔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살전 4:9-12)

데살로니가교회는 정말 사랑의 수고가 넘쳤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고 잊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수고하게 만듭니다. 수고는 노동, 해산, 진통을 의미합니

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산의 진통을 감수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는 “고통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고를 말합니다. 보통 때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집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시간을 내게 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하게 합니다. 고통이 따르고 진통이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다섯 가지 특징을 언급합니다.

- 1)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 2)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3)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 4)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 5) 마지막으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랑의 특징은 모두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사랑은 희생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교회를 위한 사랑이든, 성도를 위한 사랑이든, 이웃을 위한 사랑이든 관계 없이 모두 희생이 전제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더 수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사랑의 수고는 쉽게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온 성도들은 다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할 일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필요한 도구가 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면 성도를 위해 수고할 일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랑을 소유한 사람의 행동양식입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소망의 인내

당시 데살로니가교회는 외부적으로 유대인들의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곧 주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소망의 인내’란 소망으로 인해 고무된 인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인내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긴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은 소망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17)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갖 핍박 속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자유롭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강렬한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수년 전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노르웨이산 야생 쥐(Norwegian field rats)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죽을 때까지 물통 속에서 수영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그룹의 쥐를 물통 속에 넣고 실험을 했는데 쥐들은 일곱 시간 동안 계속하여 수영을 한 후 탈진하여 익사했습니다. 다른 그룹의 쥐들도 앞의 쥐들과 완전히 똑같은 조건으로 수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쥐들은 익사 직전에 잠깐 동안 건져내어 물 밖에서 몇 초를 지나게 한 후 다시 물통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깐 바깥에 건져낸 후 다시 물통 속에 집어넣은 쥐들은 거의 스무 시간 동안이나 수영을 했습니다. 똑같은 쥐를 똑같은 물통 속에 넣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단지 몇 초 정도 바깥에 건져낸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물에서 세 배나 더 오래 수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깥에 건져낸 경험이 쥐들의 수영시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원들도 두 번째 그룹의 쥐들은 한번 구출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출 받을지 모른다는 소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수영을 할 수 있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 도망 가다가 벵엘에서 만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객지인 하란에서 무려 20년 동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보디발 아내

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희망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롬 5:3-4)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를 잊을 수 없었고,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을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소문이 주변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고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데살로니가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가길 기원합니다. 우리 안동교회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